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미술

허구의 힘으로 긍정적 현실을 창조하자

culture | art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운영의 최종 지향점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이미지 고양'이다. 이에 예술이 삶의 정치에 있어 새로운 제도 창출과 권리를 위한 조건에 기민한 감각과 상상력을 부여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중앙과 지역, 그리고 한국과 외국이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술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과정을 통한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 교육과 기초 예술 진흥에 질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명철
- 미술평론가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교수
- 2005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총감독

참여정부 하에서 각종 위원회가 급증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주요 정책 자문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빈번히 참가하고 있다. 자문 교수들 가운데는 하루에 줄잡아 세, 네 번씩 기관 회의에 들어가고, 주당 3, 4일을 위원회 회의에 시간을 써야 한다. 그로 인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술 현장을 나가볼 시간이 거의 나질 않고, 예술 현장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에 의존하므로 정책 입안과 결정은 자주 탁상공론이거나 상식적 견해(doxa)에 물든 동어반복이 되기 쉽다. 새로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얼마나 해소해 나아갈지 의문이다.

예술위원회가 해결할 문제들

지금까지는 현장과 정책 사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너무 얇고,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의 경험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론과 좁은 인맥의 견해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당시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몇 차례 참여한 바 있지만, 현장에 관한 논의, 판단과 결정은 원칙만 난무할 뿐,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도무지 감당조차 못하는 것이다. 예술의 속성 자체가 대상이나 사태를 지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창조적이고 자기-정립적인 허구적 실재라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정책적 기초의 설정과 판단은 애당초 과역에서 빗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개선과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더 높은' 목적에 종사하겠다는 주장들은 일종의 '허구'이다. 예술은 정치가의 말처럼 진리와 거짓이라는 규범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와 실천의 최고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들의 욕망과 역량(capacity)에 따라 허구를 생산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허구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허구가 이질적인 다수 예술가들의 집합적 창조의 형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해와 입장을 재현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에는 최악이 된다. 이것이 예술 현장의 변화와 지원 정책이 늘 어긋나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이유이다.

30여 년 간 문예진흥원이 해온 많은 일들의 보이지 않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약점은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역량 자체를 스스로 키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예술위원회의 출발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위원회 제도는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한 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배타적인 진실 게임이 아니라, 대문자 'Art'의 이름 아래 허구의 잠재적 힘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현실을 도출해 낼 것인가? 미술계는 여전히 세 개의 선들이 얽혀 있다.

첫째, 관료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제도들 안에서 작동하는 경직된 선들, 둘째, 작가적 동일성이라는 신화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이름 하에 표준적 자유주의 개념과 보수적 다원주의에 물든 분절된 선들, 셋째, 지나치게 비판이나 판단의 거리에 빠져들어 동질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대한 이질적 차이들을 생산하고 고무시키며 창조적 변이와 변화를 유발하는 선들. 이 세 가지 선들을 적당히 섞거나 절충시키지 않고 잘 식별하여 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나온 시대의 경직된 문화 공간에서 해방의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한 나라의 미술 정책의 기초를 형성해 가는 것은 현 시대의 대세이다. 이제 그것이 '삶의 질'을 위한 정치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훨씬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삶의 정치는 곧 구체적 장소의 정치이고 안의 장소와 바깥 장소(열린 세계)가 연결된 개방 공간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예술교육과 기초예술진흥에 최선 다하길

새로운 예술위원회의 정책 운영의 최종 지향점은 '문화 예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이미지 고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션을 실행하는 기초는 예술의 창조와 사람의 관계를 가급적 '코드'의 관점에서 배열하지 않고, 탈 코드와 유출(flux)의 관점에서 국내외의 커넥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에서조차 다양한 수준에서 '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혼동하고 있는 두 개의 접근법, 즉 의사소통적 접근과 시장

주의적 접근이라는 낡은 궤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공공성의 이슈에 과감히 다가가는 여러 수준의 방식을 요구한다. 위의 두 개의 접근은 오늘날 국제, 국내 가릴 것 없이 급속하게 많은 유사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작은 스타들을 계속 경기장에 내몬다. 국가경쟁력이 자칫 이런 식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하며, 예술이 삶의 정치에 있어 새로운 제도 창출과 권리를 위한 조건에 기민한 감각과 상상력을 부여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역, 그리고 한국과 외국이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술이 인간의 삶에 있어 진정으로 '현행적'이라는 점은, 그것이 삶의 현실을 지시하거나 반영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시대에 반해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시대에 작용을 가하고 바라건대 도래할 시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 구속과 억압의 형태가 되지 않는 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다. 허구의 잠재적인 힘으로 현실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과정을 통한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 교육과 기초예술진흥에 질적인 지원 사업이 이뤄지게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

